

#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10년간 30조4천억 쓴다

### 녹색성장기본계획 확정...기후위기 선제 대응 온실가스 670만t 감축 목표 97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2033년까지 30조4천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탄소중립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생명의 땅 전남'이란 비전을 제

시하고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70만t(40%) 감축 목표를 정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천600만t(수송 470만t, 건물 670만t, 농·축·해양 380만t, 폐기물 130만t)에 달했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

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 부문 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화석연료 사용 중심 수송 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차 수요 관리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470만t에서 284만t으로 39.7% 감축이 목표다.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을 추진해 66

만t에서 66만t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 381만t에서 278만t으로 26.8% 감축할 계획이다. 환경 관리 부문은 미활용 에너지(폐자원 바이오가스 등)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 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는 134만t의 51.0%를 감축한 66만t이다. 흡수 부문은 탄소흡수율을 고려한 산

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 보전,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 19개 사업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 50만t을 늘릴 계획이다. 철강 및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 전남도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

성, 에너지 전환 선도, 녹색성장 촉진,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 국내외 탄소중립 교류·협력 강화,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전남의 주력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여건과 특성을 잘 반영한,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선도모형을 구축하고 전남도만의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 "마늘 2차 생장 재해 인정 신속한 피해조사 나서야" 전남도,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1일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마늘 2차 생장(벌마늘)을 재해로 인정해 피해 조사에 나설 수 있게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2차 생장은 마늘 알맹이 하나하나에 잎이 올라오는 피해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주요 시·군 평균 강수량은 평년(73mm)보다 49% 증가한 110mm, 일조 시간은 평년(183시간)보다 24% 감소한 150시간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남도농업기술원 4월 기준 마늘 생육 상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전체 마늘 재배 면적 약 3천43ha 중 약 20% 정도가 2차 생장이 발생, 품질 하락(저품질)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전남도는 마늘 2차 생장(벌마늘)을 재해로 인정해 피해 조사에 나서도록 하고 저품질 마늘을 정부에서 구매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늘 2차 생장이 발생해 생산량 감소는 물론, 포전거라까지 이뤄지지 않아 농업인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저품질 마늘 수매가 이뤄지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2020년 마늘 644ha에서 2차 생장 피해가 발생, 재해로 인정돼 농약대 등 복구비 16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김재정 기자



소통·융합 주민 친선 볼링대회 주민자치회의 소통과 화합·친목도모를 위한 광주 동구 계림2동 주민 친선 볼링대회가 1일 BOWLERS 볼링장에서 열렸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임택 청장과 내빈들이 시구를 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 광주김치타운 슬러지 처리 혈세 투입 '논란'

### 홍기월 시의원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지적

광주김치타운 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김치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지역민 세금으로 처리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1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김치타운의 안전한 행정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폐수처리장 슬러지 문제를 지역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김치타운은 이번 추경예산에 김치 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 처리 및 노후 기계 설비 방청 공사를 위해 2

천500만원을 계상했다. 김치 가공 공장은 2010년(사)광주김치협회를 시작으로 현재(주)김치타운까지 14년 동안 총 5개 사용자에게 운영돼 왔지만 폐수처리장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세금을 투입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홍 의원은 "김치타운이 14년 동안 침전물 문제를 알지 못한 건 크나큰 직무태만"이라며 "이처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김치타운의 사례를 반면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형근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은 "김치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쌓

여 대량의 슬러지가 됐다"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행정의 부재를 통감하며 새로운 업체와 계약 시에는 슬러지 처리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치 가공 공장은 광주 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 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례 제7조는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1천분의 50' 요율이 아닌 '1천분의 10'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김치가공업체에 '선택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박선강 기자

##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미흡"

### 서임석 시의원, 교통체증·주차장 문제 우려 제기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광주시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이어 그는 "2009년 울산에서 열린 양궁세계선수권대회 주차장 규모는 9천1



80㎡인 반면, 광주국제양궁장 주차장 규모는 2천157㎡로 현저히 적은 데다, 장애인 주차 공간마저 7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경완 세계양궁대회지원단장은 "대회가 열릴 예정인 광주국제양궁장 인근 도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선강 기자

##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반쪽'

### 박미정 시의원 "병원 폐원 변수 대책 마련을"

광주시가 올해 추진 예정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사업이 '반쪽 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일 제32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여성가족국) 심사에서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의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에 보관료와 입원료, 사후관리 대책이 제외돼 있다"며 "저소득층 30-40대 여성의 장래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반쪽 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 저하에 따른 항물러관 호르몬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첫 시술비의 50%(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박 의원은 "장기 보관하는 동안 병원 폐원과 같은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강 기자

## 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의견을 기다립니다

### • 제보대상

- 예산낭비 사례
- 복구 행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 복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 제외대상

-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인신공격, 허위·비방
- 단순 민원 해결 요청
-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안
- 익명 제보 및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안

### • 제보기간

- 2024. 5. 1. ~ 5. 31. ※ 감사시기 : 6. 17. ~ 6. 25.

### • 제보방법

- 홈페이지 : 광주북구의회⇒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 게시판
- 방문·우편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3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61187
- 팩 스 : 062-526-4997

☎ 문의 : 062-410-8506 ※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됩니다.